



시민속으로 2017 / 7월 1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07월 03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지역종교문화답사 진행<7월 1일(土)>

: 우리연구원 김천식 전임연구원이 안내하는 종교문화답사가 **"7월 1일(土)"**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전 9시 한벽루에서 집결하여 "아름다운 순례길"을 따라 완주군 화심까지 약 20km 도보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나중화 회원 방문

- 곡성군 문화유산 전도사이며 여행작가인 나중화 회원께서 지난 6월 27일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연구원 사업에 대한 조언과 공동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 고정수, 이동을 회원 정년 기념 모임

- 고정수, 이동을 회원이 오는 7월 1일자로 30여년 간의 전주대 재직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상임이사와 이정욱 평의원이 두 분의 새로운 길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고정수 회원은 연식정구 국가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이후 회원들을 위한 테니스 교실을 개설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동을 회원은 당구교실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 엄연한 한축인 체육활동이 하반기부터 풍성해질 듯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진소 신부님 영명축일 기념식

- 우리 연구원 고문이신 김진소 신부님의 영명축일 앞두고 각지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임 원장이셨던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김진소 신부님의 건강과 활발한 활동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회원 글

지난 6월 유럽과 러시아를 다녀온 정석동 회원(전주 창성교회담임목사)의 러시아 상뜨페테르부르크 답사기입니다. 올 여름에 예정되었던 연구원 러시아 역사탐방의 연기를 달랠 수 있는 의미있는 글입니다. 흔쾌히 글을 전해주시는 정석동 회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제 2회 해외역사탐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뜨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와서

헬싱키에서 유레일 알레그로를 타고 상뜨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여정이었다. 러시아도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유럽연합 국경을 벗어난다는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었다. 잠시 후 러시아측에서 다시 입국절차를 밟는다. 몽골에서 러시아로 버스를 통해 입국할 때 몇 시간이 소요되던 악몽이 살아날 듯하였지만, 의외로 러시아 승무원은 친절하였다. 이윽고 열차의 종착역인 상뜨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다. 여행 중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여권과 가방을 챙기세요.'인데, 일행 중 한 분이 가방을 놓고 내렸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라 찾을 길이 막막하였는데, 다음날 오후에 친절하게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러시아는 정직하게 변했다. 정말로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하며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잠시 누렸다.

상뜨페테르부르크란 도시는 약 300년 전 표트르대제가 늪지대에 말뚝을 박아 베니스를 모방하여 만든 도시라고 하였다. 안내자의 말이 미국이 거드름을 피우며 오만방자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너희 미국은 러시아 한 도시보다도 역사가 짧은 나라이다.'라고 응수한다고 하였다. 역사도 없는 나라가 다른 국가들의 전쟁으로 돈 벌어 잘산다고 하여 인간으로서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이 살며시 느껴

졌다. 이 도시의 이름은 레닌그라드였으나 현재는 옛 이름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한다. 도시 이름의 뜻은 '쌍뜨'는 'Saint'의 러시아 역으로 '거룩한' 혹은 '성인'을 의미하고, '페테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를 의미하며, '부르크'는 독일어에서 온 단어로 '마을' 혹은 '도시'를 뜻한다. 결국 이 도시의 이름은 '성 베드로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의 이름처럼 되기를 소원해본다.

아침 호텔에서 출발하여 도시를 관통하는데 유럽풍 거리마다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화보가 되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특히 도시를 관통하는 네바강의 운하와 다리들은 마치 부산 영도다리처럼 개폐식이어서 대형 크루즈선박도 입항한다고 하였다. 차창으로 비쳐지는 성 이삭 성당과 오후에 관람할 겨울궁전이었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뒤로하고 여름궁전을 향하였다. 러시아는 여름이었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우리 일행은 가지고 간 겨울점퍼위에 어울리지 않는 천 원짜리 비옷을 겹쳐 입고 여름궁전의 분수를 감상하였다. 잘 만들어진 정원과 분수, 그 끝은 발트해와 연결된 궁전이였다. 그 중앙 분수에 사자를 찢는 근육질 남성의 조각을 보면서, 우리 일행은 '왜 삼손을 만들어냈을까?' 의문을 표할 때, 안내자 왈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스웨덴은 사자이고 그 동물을 찢는 남성 삼손은 러시아다.'라고 하였다. 궁전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고 갖가지 분수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서는 비껴나갔다. 우산을 뒤집을 듯 몰아치는 강풍에 시커먼 바다를 뒤로하고 정원 숲길을 걸었다.

점심 후 오전에 차창으로 보았던 성 이삭 성당을 관람하였다. 정말로 화려한 외관과 내부의 장식이 한 때 종교의 영화를 누렸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현실이었다. 신앙인으로서 왠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의 미래를 보는듯하여 씩씩한 웃음을 지어보았다. 러시아교회는 주로 정교회로서 내부에는 화려한 성상, 촛대와 웅장한 아치형 천장 등이 인상적이었지만, 거의 예배는 없고 신실한 신자들이 오가며 기도하고 촛불을 밝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정도요, 일생에 3번 정도 교회에 가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적잖게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교회당이 박물관으로 변한 현실이 슬퍼졌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이어 세계 3대 박물관중의 하나이다. 이 박물관은 로마노프왕자가 쓴 궁전이기에 겨울궁전이라고도 불렸다. 마치 공항처럼 생긴 검색대를 지나 생수와 음식을 다 버리고 입장하였다. 거의 3톤의 무게라는 상들리에가 걸린 방을 지나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초상화가 진

열린 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형작품들이 전시된 방들을 지나면서 사온 것인지 아니면 상납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였다. 마침 안내자가 두께가 약 20cm정도 되는 벽화 그림 앞에서 '수도원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러시아에서 이 그림을 사서 벽을 통째로 운반하다가 설치한 작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몽크, 고흐, 르노와르 등의 그림을 보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감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정에 떠밀려 겨울궁전을 나왔다. 겨울궁전을 나올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나는 심수봉 선생이 불렀던 '그 때 그 사람'이란 가요를 흥얼거리다가 눈총을 맞아 심장이 멎는 듯하였으나, 일행들의 지지로 '사랑으로'와 러시아노래를 번안했던 '백만송이 장미'를 끝으로 나의 노래는 막을 내리면서 쌍뜨를 떠나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에미르타쥬 박물관에서>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계시는 **“조정숙”** 님, 진안 나눔푸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박예환”** 님 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 설도(薛濤, 768-832). 중국 당(唐)의 시인으로 자(字)는 홍도(洪度)이다. 장안 사람으로 아버지 설운을 따라 성도에 머물렀다. 14세에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기울어 16세에 기녀(妓女)가 되었는데, 후에 은퇴하여 완화계(浣花溪)에 거주하였고, 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유우석(劉禹錫) 등과 시를 교환하였다. 자신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시전(詩箋), 설도전(薛濤箋)으로도 알려져 있다.

■ 작 품

十離詩(第4首)

隴西獨自一孤身(농서독자일고신)
飛去飛來上錦茵(비거비래상금인)
都緣出語無方便(도연출어무방편)
不得籠中再喚人(부득농중재환인)

이별의 노래(넷째 수)

농서 땅에 홀로이 외로운 신세
이리저리 나르다가 비단자리에 앉았지요.
생각없이 뱀은 말 헤어날 수 없어서
다시는 둥지 안에서 사람을 부르지 못하네요.

■ 감 상

- 「십리시」는 열 종류의 이별을 노래한 연작시이다. 열 종류의 이별이란 주인에게 쫓겨난 개, 손을 떠난 붓, 마구간을 잃은 말, 둥지를 떠난 앵무새, 둥지를 잃은 제비, 손에서 벗어난 구슬, 연못을 떠난 물고기, 깍지를 벗어난 매, 정자를 잃은 대나무, 경대를 떠난 거울로 구체화된다. 위고의 사랑을 잃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각각의 사물에 빗대 노래한 시들인데, 설도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이 시는 둥지에서 내침을 당한 앵무새를 소재로 삼은 넷째 수이다.

■ 역사속의 오늘

○ 장례식을 통해 이전 된 광장의 소유권 - 1987년 7월 9일

한국 현대사에서 광장의 소유권이 민인들에게 옮겨진 것이 이날이라는 주장에 이견을 가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이한열은 27일 만인 7월 5일 숨을 놓았다. 그가 피격 당하고 숨을 놓을 때까지 민인들은 광주의 피칠갑으로 탄생한 전두환 정권과 사생결단의 승부를 벌였다.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라는 요란한 사기극 이후 항쟁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고 숨을 놓은 그의 장례식은 연세대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영결식에서 故문익환 목사는 명연설을 남겼다. 그것은 수사학으로 또 선전술로 구성된 연설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황정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숙 열사여. 진성일 열사여. 송광영 열사여. 박영진 열사여...박종철 열사여...광주 2천 영령이여..." 불려진 이름엔 학생도 있고 노동자도 있었다. 모두가 역사의 역류를 순류로 바꾸고자 자신의 삶을 담겨쓴 민인들이었다. 문익환 목사는 다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산 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광주의 아들 이한열은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 "한열아 가자. 이제 우리 광주로 가자." 어머니의 피맺힌 몸부림과 함께 광주로 가기 전 이한열이 향한 곳은 서울시청 광장이었다. 그날 이전 수천 수만 수십만 갈래의 흐름으로 1987년 6월을 관통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광장에 모였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의 흥수였고 사태였다.

이날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자들도 언론을 앞세워 민인들을 무민(無民)케 한 자들도 이날 모인 이들에게 광장의 소유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기에 누군가의 통제가 통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할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가슴 속으로는 뿌듯함이 솟았을 것이다. 이한열의 상여 앞에서 시민들은 조기 계양을 외친다. 광장 주변의 모든 건물 태극기가 조기로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시청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 의해 태극기의 높이가 낮아졌다. 불과 보름전만 해도 그 곳에 열명이 모이건 백명이 모이건 권력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응수했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 태극기를 조기로 만든 이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었다. 그날로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소유권은 시민에게 이전되었다.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던 붉은 악마의 함성도, 미군 장갑차에 쓰러진 신호순과 심미선을 기억하자는 촛불도, 2008년 미친 소를 수입하지 말라는 외침도 87년 7월 9일 열린 광장의 후예들이었고 그 소유권은 보란 듯이 시민들에게 유전되어 왔다. 그 뿐인가. 물대포로 농민의 목숨을 멈추게 하고 광장의 소유권을 다시 찬탈하려했던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것도 광장에 서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장의 소유권이 다시 민인들에게 돌아 온 날, 그날 이후 우리 현대사는 민인들이 역사의 샘을 만들고 마침내 강이 되어 바다로 이르는 변함없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 연구원 협약기관이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유두희 관장을 비롯하여 조정숙, 박선주, 김다혜 팀장 등 연구원 회원들이 적극 추천하는 미숫가루 특판행사를 안내드립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 **중량 : 1Kg / 가격 : 10,000원** -

고소한 내고향 웰빙 미숫가루

입맛이 없거나 커르기 쉬운 식사를 든든하고 간편하게
뛰어난 소화 흡수와 영양공급에 도움
여름철 열음을 띄워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고
- 수험생, 청소년, 어린이, 임산부 영양 간식 및 어르신 영양식으로 최고
- 진하고 고소한 맛 - 미숫가루 3큰술, 우유 200ml, 꿀 또는 올리고당 1큰술
- 단백질 맛 - 우유 대신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 보관법 -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18 ~ 22℃)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

-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곡식만을 엄선하여 제조
(보리74%, 찰쌀7%, 현미찰쌀7%, 메주콩6%, 약콩6%)
- 칼로리 358kcal(100g) 무기질,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

무방부제, 무색소, 무설탕 곡류이외에 다른 화학 성분 무(無)사용
무료 택배 배송 5kg이상 주문 시 무료 택배 배송

웰빙 미숫가루 판매 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쓰여집니다.

- 중량 및 가격 1kg 10,000 원
- 주문 전화 063) 571-9051 / FAX 063)571-8051
- 주문 방법 전화 및 방문 주문 (5개 이상 무료 배송)
- 계좌 번호 농협 351-0744-7064-13 성공회정읍교회

제조원 :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영업허가번호 제12-14호)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축촌길 92-18(☎063-538-1900)